

단아함·질박함... 한국 전통 도자기의 매력

광주문예회관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전
7월 8일까지...도자예술촌 10명 초청

롯데갤러리 '김기현 달항아리' 전
7월 8일까지... 작품 20여점 선 보여



계룡산 도자예술촌 작가 10명이 참여하는 '계룡산철화분청사기전'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



김기현 작가의 달항아리.

한국 전통 도자기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첫번째 전시는 청자, 백자와 함께 3대 도자기로 꼽히는 철화분청사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전(7월8일까지)이다.

광주문예회관 갤러리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계룡산 도자예술촌 작가 10명을 초청해 마련한 것으로 권명희, 김성훈, 김용운, 양미숙, 윤정훈, 이영숙, 임성호, 최홍일, 평정화, 황병식 작가가 항아리, 편병, 접시 등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광주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철화분청사기는 백색토를 표면에 바른 뒤 검붉은 색의 산화철 안료를 사용해 익살스러운 물고기, 당초문, 추상문 등을 그린 15세기 조선요의 대표작으로 오직 광주 계룡산에서만 생산됐다.

전시작들은 전통적인 양식을 이어가되 자유분방하고 다채로운 아이디어가 겹쳐지면서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계룡산 도자예술촌은 조선시대 철화분청사기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도예인들이 뜻을 모아 형성한 예술인 마을로 15세기 계룡산록도장에서 만들었던 철화분청사기 복원을 꿈꾸며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들은 질박한 멋이 특징인 철화분청사기의 매력을 알리기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람시간 공연 있는 날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 공연 없는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공연 일정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13-8357.

단아한 달항아리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전시회도 열린다.

롯데갤러리 광주점(롯데백화점 11층)은 김기현 작가를 초청, '김기현 달항아리전-어질고 넉넉한'을 오는 7월 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백자 달항아리를 중심으로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30년 넘게 도예 작업을 해온 김 작

가는 분청자 위주의 대형 막사발 작업을 진행하다 7년여 전부터 달항아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백자 달항아리는 원형에 가까운 둥근 기형과 흰 유약이 마치 보름달을 연상시켜 붙여진 이름으로 본래 장, 젓갈, 기름 등을 담아두는 도구로 만들어졌지만 점차 사대부의 감상 대상이 됐다. 일명 백자대호(白磁大壺)로 불리는 백자 달항아리는 18세기 전반 경기도 광주 금사리 가마에서 처음 선보였고 크기가 약 45cm가 넘어 당시의 수도 물레로는 성형이 불가능했다. 조선의 도공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두 개의 큰 사발을 만들어 위아래를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자기를 제작했던 터라 당시 달항아리에는 위아래를 이어 붙인 자국이 남아있고 완벽한 조형미보다는 일그러진 부정형의 둥근 멋과 여유로운 미감이 특징이 됐다.

김 작가는 선조들이 사용했던 전통 방식 그대로 두 개의 큰 사발을 이어 붙여 작품을 제작한다. 특히 대량생산이 가능한 전기나 가스 가마 대신 오랜 기간 불을 지피고 가마 앞을 지키며 정성을 다하는 장작 가마를 활용해 달항아리를 제작, 독특한 빛깔과 형태를 얻어낸다.

그는 작가노트에서 "천강유수천강월(千江有水 千江月), 일천 개의 강에는 일천 개의 달이 비치고 있다는 의미로 꾸준히 각양각색의 표정이 있는 일천 개의 달을 풀어 보여준다. 이 달항아리를 보는 이들이 커다란 복과 건강의 기운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남대 미술학과, 단국대 대학원 도예학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지금까지 6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221-1807. /김미은 기자 mekim@k

신창운 작가 '욕망의 흔적' 전... 28일까지 은암미술관

신창운 작가 초대전이 오는 28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에서 열린다.

'Trace of Desire' (욕망의 흔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작들은 먹과 아크릴 그리고 칠링콜을 사용해 제작한 작품으로 모두 미 공개된 솜 작업과 회화 작품들이다.

작가는 그동안 다양한 매체실험을 통해 독특한 역사의 아픔과 회한을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구현해 왔다. 화려한 색조와 그라데이션 기법을 통해 욕망의 강렬함과 그것의 이중성을 표현한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여온 신 작가는 최근에는 타다 남은 숯의 바스라질 것 같은 질감을 고스란히 화면에 옮겨놓기 위해 틈틈이 숯을 구워 다듬고 질감을 연구했다.

인간의 심연에서 꿈틀거리는 욕망과 동시대의 삶을 다양한 시각적 아이러ンを 차용해 표현해온 작가는 이번 전시

에서도 지폐, 미사일, 부러진 판사봉, 곧 재가 될 듯한 숯 등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특히 '욕망의 흔적' 연작은 화려하게 불타올랐던 욕망의 상념들이 바스라진 후 남은 공허한 실체에 대한 사유의 결과물이다. 작가가 하루하루 일기를 쓰듯 그려왔다는 '흔적' 작업은 지식의 독점과 조작을 통해 인류의 삶을 처참히 짓밟아버린 절대 권력, 신성으로 위장한 부패한 종교, 환상과 허위를 주입하는 자본주의와 대중문화 등에 날 선 비판을 가한다. 문의 062-231-5299.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신 작가는 우리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인류학 석·박사과정을 밟았다. 지난 2010년 인도 유학을 마친 후 인간 심연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다. 광주신세계 미술상, 광주미술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 광주시립미



'흔적'

술관 '올해의 청년작가'로 선정돼 대규모 초대전을 개최했다. 문의 062 231 529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드뷔시 서거 100주년 헌정음악회

광주시립교향악단 29일 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제335회 정기연주회 '드뷔시 서거 100주년 헌정음악회: French Chic'을 연다.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올해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드뷔시 서거(1862-1918) 100주기가 되는 해이다. 그의 음악은 인상주의 회화에 빗대어 '인상주의 음악'으로 분류된다.

그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연주회와 음반 발매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향에서도 드뷔시의 감성, 프랑스 음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음악회를 준비했다. 광주시향의 김홍재 상임지휘자가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은희(사진)가 협연한다.

첫 무대는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으로 연다. 드뷔시 초기 작품 중 하나로 그의 혁신적인 첫걸음을 미리 짐작케 하는 곡이다. 이어지는 협주곡은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이다. 생상스가 작곡한 3곡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 가장 유명한 곡으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곡 중 하나이다. '카리안 제



단' 특별상을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은희의 연주로 만난다.

김 씨는 4세에 비엔나 국립음악대학 교장학생으로 최연소 입학, 5세에 헝가리 사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등 유럽 음악계의 주목을 받으며 성장했다. 8세 때 로만 코프만 지휘의 키에프 국립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CNN을 통해 소개되면서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향악단, 명지휘자와 협연을 펼치며 활동 중이다.

마지막은 프랑크의 '교향곡 라단조'로 마무리한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062-524-5086.

/전은재 기자 ej621@kwangju.co.kr

영호남 달빛 음악제 28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제20회 영호남 달빛 대음악제가 오는 28일 오후 7시 0분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영·호남 양 지역간의 문화예술발전과 지역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에는 소프라노 린다박(사진), 김선희, 바리톤 왕의창, 방대진, 플루트 박혜원, 피아노 하영주, 최정은, 이주영, 동수정, 바이올린 원선운, 클라리넷 정혜진 등이 출연하며 목포시립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 레퍼토리는 고송익의 '꽃비와 주마등', 임우상의 '내 사랑이여', 임주섭의 오페라 '글로벌 중개사' 중 '중개사의



기억들' 등이다.

한편 지난 12일 대구 수성아트피아 무학홀에서도 공연이 열렸다. 문의 010-9881-5321. /전은재 기자 ej621@

광주문화재단 광주학 콜로키움... 오늘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은 25일 오후 6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2층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서 제3차 광주학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광주천이 품은 역사'를 주제로 조광철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사가 발표한다.

조광철 학예사는 광주천의 개발은 통일신라시대 누문동 일대에 무진도독부성을 쌓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며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광주읍성의 축성과 유지를 통해 개발이 지속됐다고 본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직강화공사로 전

통적인 하천 경관이 훼손됐고 해방 후 1960~70년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교동남, 하수처리 등의 해결을 고민할 때마다 난개발이 됐다고 지적한다.

이날 콜로키움에는 천덕염(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임영진(전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덕진(광주교육대 사회과 교육과 교수) 등 광주학 연구자 및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2-670-743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 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